

##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찬반 격화

시도, 첫 공청회 각계 의견 충돌  
"특화연구 약화" vs "시대 역행"  
피켓 시위 등 갈등·진통 예고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둔 지역사회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통합 8년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 연구원 재분리 의견을 묻는 첫 공청회에서 '지역특화 연구 약화'라는 찬성측과 '시대흐름 역행' 등을 주장하는 반대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청회를 앞두고는 반대측의 피켓 시위가 열리는 등 향후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16일 오후 시의회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싱크탱크는 시도에서 각각 운영 하는 것이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유리하다"며 "고양,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에서는 도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개 자체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분리에 방점을 찍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류재한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도 "광주의 기후와 도시문제, 공간계획, 주택, 교통계획, 도시경제, 지속가능성과 같은 다변화된 대도시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에 찬성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현재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국비나 국책 사업을 지원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과 비전, 위상에 부합하는 핵심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시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기능이 특화된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특화된 연구원이 미래를 선도할 도시정책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상생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광역단체의 연구원 규모와 비교해볼 때 광주전남연구원은 인력이나 출연금이 충분치 못하다. 출연금을 증액하고, 핵심 장기과제·주요 과제에 집중한다면 연구원은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분리 논의를 계기로 통합연구원의 위상과 임무, 존재 이유를 확인해 통합적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분리, 통합을 반복하면서 연구원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면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심지어는 연구원 분리·통합 8년 주기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청회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분리 찬성 패널로 나선 김종익 (상생생나무 이사장은 "초광역 상생이나 지역소멸위기에 관해 광주와 전남의 공동대응과 이를 뒷받침할 공동 연구는 필요하지만 분리운영이 지니는 장점을 상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연구를 피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광주와 전남의 생산면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큰 차이가 나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정적, 경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통합 운영보다 분리 운영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면으로 이어짐 /정근산·김용현 기자

### 알립니다

## 2023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

대신협 주최...4월 28~30일 수원메세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가 국내 최초로 열립니다.

전국대표 지역간담회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주최하고, 연간 전시 개최 횟수 국내 1위의 전시주최사 (주)메세이상(MESSE ESANG)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수원역 수원메세(SUWON MESSE)에서 오프라인 박람회인 한마당 축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 각 시·도 출향도민회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 이번 한마당 축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들에게 전달하는 답례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며, 전국 각 지역 농특산물들을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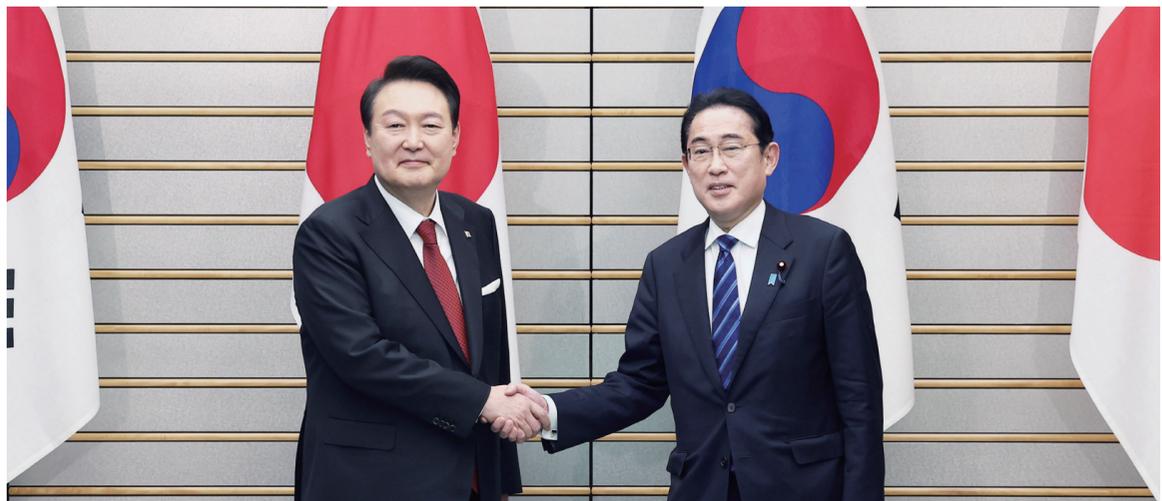
'우리 고향 사람, 기부로 실천하는 고향 사

랑'이란 슬로건 아래, (주)메세이상이 대규모 블록 부스를 마련해 홍보관과 판매관, 안내관, 정보관을 구성할 예정이고 여기에 부대 행사로 전국 8도 답례품 홍보존, 고향사랑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별행사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향사랑 한마당 행사와 답례품 상담회 등 다채로운 한마당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더욱 심화되는 지역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기부자, 생산자 모두가 좋은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한마당 대축제'에 자치단체와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일정 : 2023년 4월 28일(금)~30일(일) / 3일간
- ◆ 장소 :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세 (수원역 2번 출구)
- ◆ 주최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 ◆ 주관 : (주)메세이상 (MESSE ESANG)
- ◆ 문의 : 전남매일(062-720-1011)·(주)메세이상 (02-6121-6388)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새시대 첫 걸음"

한일정상 공동 기자회견

김대중-오부처 선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처 공동선언'이 25주년을 맞아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5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 우리

측 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여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23전국의병

# 마라톤 대회

2023. 4. 30(일) 의령공설운동장 오전09:00

|주최·주관| 경남일보 | 후원| 의령군

접 수 2023. 4. 9(일) 까지

종 목 풀, 하프, 10km, 5km 건강달리기

참 가 비 풀(3만5천원), 하프(3만원), 10km(2만5천원)  
5km(일반 1만3천원, 학생 1만원)

접수방법 홈페이지 <http://www.urmarathon.com>  
FAX 055-757-0035

문 의 TEL 055-751-1085

- 풀, 하프, 10km 참가자 기념품  
**PRO-SPECS Sports-Bag**

- 5Km 참가자 기념품 스포츠타올

※실제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